

중년여성의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도영¹ · 임연실² · 전해정^{2†}

¹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석사

²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2021년 11월 10일 접수: 2021년 12월 22일 수정: 2021년 12월 23일 채택)

The effect of beauty lifestyle on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skincare workers

Do-Young Park¹ · Yeon-Sil Lim² · Hae-Jung Chon^{2†}

¹Major of Beauty Design, Sungkyul University, Anyang-si, Gyeonggi-do, Korea

²Department of Beauty Design, Sungkyul University, Anyang-si, Gyeonggi-do, Korea

(Received November 10, 2021; Revised December 22, 2021; Accepted December 23, 2021)

요 약 : 본 연구는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 광주, 세종, 대전에 거주하는 35세-65세의 중년여성 417명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7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중년여성의 뷰티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과시추구형, 외모추구형, 실용추구형, 유행추구형순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는 뷰티라이프스타일의 실용추구형과 과시추구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용추구형과 과시추구형을 위한 경제성과 고급화를 추구하는 양가적 관점에 기인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의 정보와 뷰티제품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중년여성, 뷰티라이프스타일, 삶의 질, 실용추구형, 과시추구형

Abstract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eauty lifestyle on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417 middle-aged women aged 35-65 years living in Seoul, Gyeonggi, Gwangju, Sejong, and Daejeon were conducted from February 27, 2021 to March 14, 2021.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orrelation of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according to beauty lifestyle was positively correlated in the order of show-off type, appearance-seeking type, practicality-seeking type, and fashion-seeking typ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ractical pursuit of beauty lifestyle and the pursuit of show-off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stomized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marketing strategies

[†]Corresponding author

(E-mail: hjchons@hanmail.net)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University.

for beauty products based on the ambivalent perspective that pursues economic efficiency and luxury for the practical and flaunting types that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Keywords : Middle-aged woman, Beauty Lifestyle, Quality of life, Practical pursuit type, Show-off type

1. 서론

현대인들의 의식수준과 행동양식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라이프스타일은 건강을 위한 웰빙을 도모하면서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변모하고 있다[1]. 더욱이 아름다움을 가꾸고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연령대에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중년 여성은 다양한 분야로 사회 진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2]. 중년기의 여성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장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중한 역할 부담과 함께 신체적 노화로 인한 몸과 마음의 갈등과 정신적, 신체적 불균형 상태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는 세대이다[3]. 또한 중년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기로서 노화되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실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이영분(2010)[4]은 그의 연구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노화를 감당하며 아름다운 여성성을 상실하는 과정의 중년여성들에게 자아 존중감의 향상 및 우울감 극복을 위하여 외모 관리행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이 보편화되면서 중년여성의 사회적,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위축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향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더욱이 중년여성은 자아실현과 자기육구 충족을 위한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뷰티산업에서 구매력 있는 골드세대로서 주목받고 있다[5]. 중년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외모에 대한 관리와 투자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추구하려 노력하고 있다[6]. 이렇듯 중년여성은 외모에 대한 만

족도가 클수록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주현이(2020)[7]는 중년여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주관적 경제 생활수준과 긍정정서, 자아존중감영향의 연구에서 생활환경 만족과 긍정정서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신과 김정란(2001)[8]는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및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은 자아정체감이 높고 위기감이 낮을수록 높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의 뷰티관리 행동을 통해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은 삶의 질과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년여성은 자신만의 개성과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하면서 전반적인 뷰티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있다. 뷰티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뷰티관리가 접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년여성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외모관리행동을 지향하며[9], 뷰티라이프스타일은 사회적 역할과 대외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까지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년여성의 뷰티라이프스타일이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뷰티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가 라이프스타일의 뷰티 행동연구에 관한 것으로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뷰티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여성 대상의 뷰티산업 관련 상품의 기획 및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년여성

중년기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인생의 전환점으로서, 어느 시기보다도 내·외적으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되며 여러 가지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시기로서 인성이나 혼돈, 가치, 실망감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10], 사회적으로도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대부분 중년기의 연령은 유동적이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40세에서 60세까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중년기의 연령 기준은 생활연령, 사회적 연령, 심리 연령 등의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연령에 대한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연구자에 따라 35세에서 65세까지로 볼 수 있다[11].

중년기는 부모로의 역할보다 아내와 남편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시기이고, 노년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하며, 독립한 자녀를 성숙한 개인으로 대우하여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 시기이다[12]. 중년여성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한경희(2015)[13]는 중년여성의 신체는 갱년기로 인해 여성성을 잃어가는 심리적인 우울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이미 시작된 노화로 인하여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쇠퇴기 관점에 있는 중년여성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지금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성취할 수도 있다. 김수진(2015)[14]은 중년기의 여성은 자아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기이며, 성숙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유림과 소황옥(2017)[15] 역시 현재 중년여성은 자신의 삶을 중시하고 변화된 사회생활의 빠른 적응력, 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문화적 가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화장품, 패션, 이너뷰티, 건강식품 등의 구매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중년여성은 현 사회에 중요한 소비층으로서 사회, 문화, 경제의 주도적인 세대이며 폭넓은 소비문화의 주체로서, 젊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위해 적극적인 뷰티관리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년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뷰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2.2. 뷰티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광범위하고 집합적인 의미의 생활양식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적 생활방식으로서 가치와 태도, 그리고 외형적 행동들로 구성되는 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16]. 또한 소비자 행동을 시장세분화의 기준과 사회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가치가 있으며[17], 이러한 라이프스타일과 궁극적인 인간가치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게 한다.

뷰티라이프스타일은 뷰티와 라이프스타일의 합성어로,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과는 달리 미용학적 관점에서의 뷰티관리행동에 의한 라이프 스타일로 분류되며, 외모관리행동이나 뷰티에 대한 인식이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되어 있다. 뷰티라이프 스타일의 행동은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삶의 방식이며[18], 뷰티관리에 대한 노력이 많아질수록 개성표현이 가능하여 이로 인해 자신감의 상승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박주현(2010)[19]은 그의 연구에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로 라이프 스타일의 요인으로서 경제·실용추구, 유행추구, 보수·전통추구로 분류하였으며, 차혜림(2013)[20]은 성인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미용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라이프 스타일 구성요인으로는 과시욕구형, 유행추구형, 외향적추구형, 건강추구형, 평등적 사고형으로 분류하였다.

2.3. 삶의 질

삶의 질은 삶(Life)과 질(Quality)의 독립된 개념의 합성어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정도와 사람들의 복지 그리고 행복의 정도 등 주관적인 것을 말한다[21]. 즉 삶의 상황에 대한 현재의 지각된 만족의 정도를 삶의 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 외에 경제적 활동가 사회적 활동을 포함시킨다[22].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다루어져 오고 있으며 삶의 질의 정의와 연구의 방법은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중년여성에게 삶의 질에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 정서 상태, 경제생활, 자아존중감, 신체 상태와 기능이 영향을 미친다[23]. 주현이(2020)[24]는 그의 연구에서 중년여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생활환경 만족과 긍정

정서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정신과 김정란(2001)[25]은 중년 여성의 삶의 질은 자아정체감과 중년기의 위기감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은 높고 위기감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최수경, 정수진, 추미선(2014)[26]은 외모관심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감을 부여해서 삶의 질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뷰티라이프스타일의 실천은 위축되어온 중년여성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기능과 삶에 대한 안녕감과 주관적인 만족감을 부여하여 삶의 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1. 중년여성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의 35세에서 65세 까지로 정의 하였다.

3.2. 뷰티라이프스타일

본 연구에서의 뷰티라이프스타일의 행동은 중년여성들의 다양한 뷰티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감을 통해 자아실현을 부각시키는 수단이라 정의 하였다.

3.3. 삶의 질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은 뷰티관리 행동을 통한 아름다움의 연출로서 자아실현을 통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4.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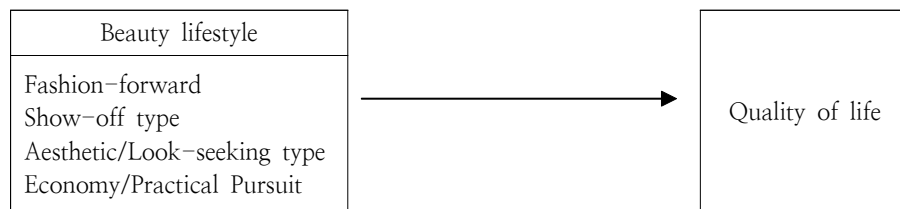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뷰티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4.2. 연구문제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뷰티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중년여성의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4.3.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경기, 광주, 세종, 대전에 거주하는 35세-65세의 중년여성 450명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7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450부 배포하여 온라인설문지 116부와 오프라인 설문지 334부중 분석하기에 부적합한 설문지 33부를 제외한 후 총 417부로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4.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뷰티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에 대한 문항들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셋째, 뷰티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의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한 뷰티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다섯째, 뷰티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뷰티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5.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다음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뷰티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설문은 25개 문항으로 구성내용은 최미화(2019)[27], 차혜림(2013)[28], 강백니(2012)[29], 박주현(2010)[30]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 삶의 질에 관한 설문은 10개 문항으로서 구성내용은 박미례(2013)[31], 정운슬(2018)[32], 손미자(2019)[33]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서 총 1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측정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서, ‘매우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로 하였다. 인구 통계적 변수는 연령, 결혼유무, 최종학력, 직업, 월 소득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로 설문문항은 연구자가 목적

에 알맞게 5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5. 연구결과

5.1. 뷰티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

뷰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를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그 결과로서, 요인 1은 고유 값이 6.273, 설명비가 25.09%로 나타나서 유행추구형 요인을 설명해 주며, 요인 2는 고유 값이 3.367, 설명비가 13.46%로 나타나 외모추구형 요인을, 요인 3은 고유 값이 2.372, 설명비가 9.48%로 나타나 실용추구형의 요인을, 요인 4는 고유 값이 1.952, 설명비가 7.80%로 나타나 과시추구형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

5.2. 삶의 질의 요인분석

본 연구를 위한 삶의 질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주성분의 분석방법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1. Survey contents

Contents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Measure	Source
Beauty lifestyle	Fashion-forward	25	Likert 5 point scale	Park Joo-hyun (2009), Kang Baek-ni (2012), Cha Hye-rim (2013)
	Show-off type			
	Aesthetic/look-seeking type			
	Economy/Practical Pursuit			
	Quality of life	10	Likert 5 point scale	Park Mi-rye (2013), Yunseul Jeong (2018), Mija Son (2019)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5	Nominal scale	
	Marriage			
	Education			
	Jab			
	Monthly average income			

Table 2. Factor analysis of beauty lifestyle

Division	Factor			
	Fashion- forward	Look-see king type	Practical Pursui	Show- off type
I am ahead of others by quickly adopting new beauty information or trends.	.802			
I often go to cosmetics stores to find out about new products.	.797			
When a new beauty style-related product comes out, it is common for me to buy it before my friends.	.760			
When I buy cosmetics, I always consider trendy makeup methods and accessories.	.738			
I tend to quickly accept new beauty information and trends.	.710			
I have people around me imitate my makeup and hairstyle.	.686			
When I see new beauty products, I often buy them out of curiosity.	.630			
To me, the fashion of the outer case or design of a product is more important than the function or quality of cosmetics.	.614			
In order to live a happy life, I must first have an abundance of beauty style related products.	.577			
I get the latest information on beauty that suits me through cable TV or the Internet.	.575			
I tend to have a personality in my makeup technique and the way I decorate myself.	.555			
For me, it is more important for a person to have a firm view on beauty style than power, money, or fame.	.502			
Even with age, women should pay attention to appearance management and beauty style.		.780		
I am very interested in appearance and beauty.		.675		
I think changing my makeup and hairstyle improves my self-confidence.		.648		
Even when I enjoy leisure or hobbies, I tend to pay a lot of attention to my appearance.		.588		
When I watch TV or movies, I tend to look at my appearance a lot.		.573		
I check the price carefully when purchasing even small beauty style products.			.733	
I mainly purchase beauty products during sale periods and at discount stores.			.693	
In order to buy cheap products, I compare the prices of products in various stores and then buy them.			.675	
I try not to buy beauty style related products that I did not plan first.			.656	
I buy beauty style-related items with a plan.			.607	
I have more confidence in famous brands related to beauty style products.				.819
I think that the more expensive the beauty style products, the better the quality.				.810
I tend to choose beauty style related products, even if they are expensive.				.396
Eigenvalue	6.273	3.367	2.372	1.952
Dispersion rate	25.091	13.466	9.488	7.809
Cumulative dispersion rate	25.091	38.557	48.046	55.855
KMO = .913, Bartlett's test 결과 $\chi^2 = 4743.541$ (df=300, p=.000)				

Table 3. Quality of life factor analysis

Division	Factor
	Quality of life
I am satisfied with my ability to perform daily activities.	.809
I am satisfied with my role as a member of society.	.768
I am healthy enough to engage in beauty activities.	.663
I think my life has meaning.	.647
I am satisfied with the convenient medical service.	.634
I can concentrate well.	.629
I have enough money for what I need.	.623
I agree with my physical appearance.	.610
I am satisfied with the means of transportation I use.	.535
I have time to enjoy life's leisure and beauty activities.	.400
Eigenvalue	4.108
Dispersion rate	41.076
Cumulative dispersion rate	41.076
KMO = .837, Bartlett's test 결과 $\chi^2 = 1383.180$ (df=45, p=.000)	

Table 4. Beauty lifestyle, quality of life reliability analysis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Beauty lifestyle	Fashion-forward	.912
	Look-seeking	.844
	Practical pursuit type	.702
	Show off type	.646
Quality of life	10	.831

삶의 질에 대한 KMO 값은 0.837로 높기 때문에,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 카이제곱값이 1383.180으로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났으므로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유 값이 1.0 이상의 요인에 한하며 요인적재량이 0.3이상인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서 요인수를 1개로 결정했고, 그 결과 삶의 질의 고유 값은 4.108, 설명비는 41.07%로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

5.3. 뷰티라이프스타일, 삶의 질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를 위한 뷰티라이프스타일, 삶의 질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뷰티라이프스타일, 삶의

질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 유행추구형 요인은 .912, 외모추구형 요인은 .844, 실용추구형 요인은 .702, 과시추구형 요인은 .646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831로 나타났다.

5.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본 연구를 위한 인계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Table 5>와 같으며, 연령과 월 소득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연령은 50대 이상(M=3.63)의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F=4.383, p<.05), 월 소득은 400만원 이상(M=3.70)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17, %

Division		N	Mean	Standard Deviation	t/F	p	Scheffe
Age	30;s (a)	169	3.59	.51	4.383*	.013	c,a>a,b
	40;s (b)	132	3.45	.47			
	50 years of age or older (c)	115	3.63	.47			
Married	Single	115	3.62	.51	1.732	.084	-
	Married	301	3.53	.48			
Last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ion or Below	61	3.52	.56	1.250	.287	-
	University Graduation	308	3.55	.49			
	Graduate school graduation or higher	47	3.66	.38			
Job	Office worker	210	3.54	.46	2.055	.086	-
	Service job	39	3.41	.51			
	Office worker	49	3.55	.44			
	Housewife	46	3.58	.47			
	etc	72	3.67	.60			
Monthly income	less than 2million won (a)	124	3.50	.49	2.957*	.032	d,c,b>c,b,a
	less than 2 to 3 million wo (b)	143	3.53	.52			
	less than 3 to 4 million won (c)	71	3.55	.47			
	4 million won or more (d)	78	3.70	.42			

* $p < .05$

Table 6. Correlation with beauty lifestyle and quality of life

Division	Beauty lifestyle				Quality of life
	Fashion-forward	Show-off type	Look-seeking type	Practical Pursuit	
Fashion-forward	1				
Beauty lifestyle Show-off type	.684***	1			
Beauty lifestyle Look-seeking type	.056	.105*	1		
Beauty lifestyle Practical Pursuit	.377***	.416***	-.018	1	
Quality of life	.148**	.159**	.154**	.176***	1

* $p < .05$, ** $p < .01$, *** $p < .001$

5.5. 뷰티라이프스타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를 위한 뷰티라이프스타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뷰티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삶의 질은 뷰티라이프스타일의 과시추구형($r=.176$, $p<.001$), 외모추구형($r=.159$, $p<.01$), 실용추구형($r=.154$, $p<.01$), 유행추구형($r=.148$, $p<.01$)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5.6. 뷰티라이프스타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를 위한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로는 <Table 7>과 같다.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063$ 으로 전체 변동의 6.3%로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6.876$, $p<.001$).

Table 7. The effect of beauty lifestyle on quality of life

Division	Dependent variable: Quality of life						
	B	Standard error	β	t	p	VIF	
Constant	2.751	.157		17.516***	.000		
Beauty lifestyle	Fashion-forward	.037	.045	.054	.819	.413	1.917
	Show-off type	.031	.043	.049	.726	.468	2.011
	Look-seeking type	.104	.034	.148	3.075**	.002	1.016
	Practical Pursuit	.089	.034	.137	2.585*	.010	1.239
$R^2 = .063, \text{adj}R^2 = .054, F = 6.876***$							

* $p < .05$, ** $p < .01$, *** $p < .001$

뷰티 라이프 스타일의 실용추구형($\beta = .148, p < .01$), 과시추구형($\beta = .137, p < .05$) 순으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뷰티라이프스타일의 실용추구형과 과시추구형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과 월 소득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50대 이상, 30대, 40대의 순으로서 50대 이상의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 월 소득은 400만원 이상, 300-4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순으로 400만원 이상이 삶의 질이 높았고, 200만원 미만이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광옥(2020)[34]은 중년여성의 일상 스트레스, 우울감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연령, 수입에 따라 삶의 질의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고, 양석자(2018)[35]는 60-70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경제성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서 본 연구 결과인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지지해 주었다. 그러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뷰티관련 제품 개발과 판매촉진 전략을 차별화 한다면 뷰티제품사용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로 인해 적극적인 구매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뷰티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삶의 질은 뷰티라이프스타일의 과시추구형, 외모추구형, 실용추구형, 유행추구형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미자(2020)[36]는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에서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고, 정수지(2021)[37]는 50-70대를 대상으로 뷰티관리행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 뷰티관리행동을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여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뷰티라이프스타일의 모든 세부 요인과 중년여성의 삶의 질은 상관 관계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시추구형이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가장 높은 관계성이 있다고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중년시기의 여성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미 안정적인 소득과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강화를 위해 과시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확장된 대인관계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스스로의 자신감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과시적인 뷰티라이프스타일은 자존감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뷰티라이프스타일이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뷰티라이프 스타일의 실용추구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과시추구형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추구형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과는, 젊은 세대의 유행추구를 거쳐 온 중년여성은 자기만의 뷰티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소비패턴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이 치우치지 않는 자신만의 개성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며 경제적인 것을 우선시하여 신중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시추구형은 실용추구형과 상반되는 뷰티라이프스타일의 유형으로서 과시적인 성향이 강하고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나 독특한 제품의 소비생활을 지향하여 우수성과 쾌락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뷰티제품의 마케팅 시 내적이나 외적으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년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적인 것과 과시적인 것에 대한 양가적 관점에 기인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정보제공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실용성과 경제성의 특징을 보이는 실용추구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먼저, 뷰티관련 제품구매를 위해 가격을 비교하고 뷰티상품정보를 모으며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성과 실용성을 갖춘 뷰티제품의 마케팅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가적 관점에서 실용추구형과는 상반된 과시추구형을 위해 과시할 수 있는 즐거움과 브랜드의 고급성에 방향을 맞춘 독창적인 정보나 제품의 마케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 2인생을 살아가는 중년여성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뷰티소비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기대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중년여성들로 국한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령대에 대한 한정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10대와 20대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향후 연구에서는 뷰티라이프스타일의 세부적 구매행동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 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References

1. H. J. Park, S. H. Park, "The Effects of Beauty Involvement on Self-Satisfaction by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Group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16, No.1 pp. 137-144, (2014).
2. M. K. Song, M. S. Kim, "A Comparative Study of the Utility Status & Customer Satisfaction on Medical Esthetics and General Esthe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sthetics & Cosmeceutics*, Vol.3, No.1 pp. 58-72, (2008).
3. S. Y. Lee.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using medical esthetics and hospital selection attributes", Chung-ang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10).
4. J. Y. Shin, J. D. Kim, "A Study on Awareness of Medical Skincar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15, No.3 pp. 786-802, (2009).
5. J. E. Lee, E. Y. Choi, "A Study on the State of Medical Skincare and Satisfaction Level", *Korean Society of Cosmetics and Cosmetology*, Vol.5, No1 pp. 73-87, (2015).
6. E. J. Jung, "A study on the medical esthetic condition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reformation plan", Chung-ang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07).
7. S. Y. Cho,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f Medical Skincare Aesthetician on Service Quality",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Vol.13, No.3 pp. 267-276, (2017).
8. H. R. Shin. "The Effect of the Job Demands of Professional and Job Satisfaction on Medical Skin Therapist", Songwon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18.
9. M. J. Kim, "Affecting Factors for Job Stress and Client Service of Estheticians in the Medical Beauty Industry",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7, No.2 p. 157-168, (2019).

10. S. H. Lee, E. Y. Choi, "A Study on the Curriculum for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on Competency Unit Element of Medical Skin Car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4 pp. 491-500, (2018).
11. J. H. Mo, S. J. Oh, "Analysis of Job Performance and Difficulty for Medical Skin care Employees",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Vol.20, No.1 pp. 37-50, (2019).
12. H. S. Yoo, S. Y. Shim, M. S. Kim, "The Job Analysis of Head Hospital Coordinators Based on the DACUM Method",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21, No.3 pp. 37-52, (2016).
13. G. M. Dang, J. H. Kim,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plastic surgery medical tourism coordinators for Chines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8, No.2 pp. 23-49, (2019).
14. Y. A. Ha. "The Influence of Job Value Types and Job Suitability of College Graduates on First Job Satisfaction: Applying a Potential Group Analysis Model", Kyunggi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18).
15. J. H. Mo, S. J. Oh, "An Analysis of Importance and Practice of Job in Medical Esthetic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4, No.2 pp. 320-327, (2018).
16. S. H. Park, H. J. Kwon, "Customers' Convergent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about Cosmeceutic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2 pp. 459-464, (2017).
17. K. J. Kim, H. S. Han, "Marketing Strategies and Consumer Recognition of Medical Cosmetics",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6, No.4 pp. 569-578, (2018).
18. J. W. Hwang. "Study on the need for medical beauty education", Konkuk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14).
19. H. Y. Lee, E. S. Kim, "A convergence study on middle-aged women's beauty interest, medical skin care visit intention, experienc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8 pp. 309-316, (2020).
20. S. J. Oh, J. H. Mo, "A Job Analysis of Medical Estheticians Using IP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24, No.1 pp. 391-400, (2018).
21. J. I. Kim,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education of medical skin care",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 No.2 pp. 9-18, (2003).
22. H. Y. Lee, K. A. Lee, "The Occupational Conditions of Medical Skincare Estheticians Working in the Dermatology Clinics",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0, No.1 pp. 69-78, (2012).
23. H. W. Kim. "Working condition and reality of skin clinic coordinator and job improvement", Chung-ang University a Master' thesis. (2017).